

**FIRST LANGUAGE KOREAN**

**0521/12**

Paper 1 Reading

**May/June 2018**

INSERT

**2 hours**

**READ THESE INSTRUCTIONS FIRST**

This Insert contains the reading passages for use with the Question Paper.

You may annotate this Insert and use the blank spaces for planning. This Insert is **not** assessed by the Examiner.

먼저 다음 설명을 잘 읽으십시오.

이 첨부 시험지에 읽기시험 문제 관련 지문이 있습니다.

이 첨부 시험지 공란에 연습 답안을 써도 됩니다. 이 시험지에 쓴 연습 답안은 채점되지 않습니다.

This document consists of **5** printed pages and **3** blank pages.

Text A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1번 문제에 모두 답하십시오.

### Text A

아래 글은 잡지 <디아티스트>에 실린 양효주의 칼럼입니다.

우리는 흔히 꽃이, 어떤 그림이, 어떤 곡이, 어떤 이야기가 아름답다고 말한다. 또는 한목소리로 합창하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피겨스케이팅을 타는 김연아 선수의 모습이 아름답다고 말한다. 이렇듯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과 서로 다른 사물, 현상에 아름답다는 말을 적용한다. 그러나 그것들 속에서 어떤 공통적인 객관적 사실이나 속성을 찾을 수 없다. 거기서 우리는 ‘아름답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된다.

5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말은 그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대상의 객관적인 사실이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그 대상이 화자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만족시켜 준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그림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때 그 말은 곧 화자가 그 그림을 좋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미적 가치는 어떤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기호와 경험과 관련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미적 가치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판단자가 자신의 주관에 의존한다 해도 그 판단이 완전히 주관적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다. 단순히 아무런 근거 없이 그 대상에 대한 느낌만으로 아름답다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인과 관계를 근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물음도 생긴다.

10

예술 작품에 내재해 있는 형식은 예술적 감동을 불러일으킨다고 한다. 대상을 이루는 어떤 질서,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 간의 관계성이 감상자의 미적 욕구를 만족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미적 본질은 형식이라는 보편타당성에 기인한 것이다. 예컨대 르네상스 시대의 미의 관념인 완벽한 인체의 비례나 원근법에 따른 적절한 배치와 구도와 같은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는 안정감과 아름다움을 느낀다. 이것은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나 의미와는 철저히 상관이 없어야 한다.

15

20

그러나 형식만으로 미적 가치를 설명하기에는 모순이 있다. 가령 빨간 장미꽃을 보고 우리가 아름답다고 느낀다면 똑같은 형태의 검정 장미꽃을 보고도 같은 종류의 미적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운율과 율격이 엄격한 시조나 한시에서는 미적 감동을 얻으나 형식을 파괴한 산문시에서는 그와 같은 만족과 감동을 느낄 수 없어야 한다. 이처럼 대상의 보편적 특징만으로 미적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것은 억지스럽고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선다.

25

현대 미술의 거장인 마르셀 뒤샹의 남성 소변기 작품 ‘샘’은 오늘날 너무나 유명한 걸작의 하나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이 대상 자체만을 보고 실로 아름다움을 느끼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될까? 분명 이것을 보고 보편적인 미의 속성을 찾기란 어렵다. 그러나 일상에서는 그저 남성 소변기에 불과한 이것을 오늘날 미술계에서는 기존의 미술의 틀을 깬 혁명적인 의미를 담은 작품이라 명명하고 이것의 미적, 예술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 즉 이 작품의 미적 가치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미의 속성으로 평가된 것이 아니라 평론가들이 이 작품에 부여한 의미와 가치로 인하여 아름답다고 평가된 것이다.

30

몇 년 전 방영한 드라마 ‘황진이’는 기생 혹은 예인이라 불리는 이들의 끊임없는 재예의 수련과 궁극의 아름다움에 도달하고자 하는 열망을 풀어놓았다. 여기에 미적 가치의 본질을 놓고 대립하는 대목이 있다. 춤 대결을 벌이는 황진이와 부용은 최고의 춤사위로 보는 이에게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는다. 부용은 전통과 무보<sup>1</sup>에 입각한 정확한 춤사위, 즉 춤의 완벽한 형식미가 미적 감동을 준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 감동은 비루한 자들은 느낄 수 없고 오직 예술과 문화를 누리는 계층인 귀족들만이 누릴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부용은 춤의 아름다움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는 특수한 지적 능력이 요구된다고 믿은 것이다. 반면 황진이는 전통과 무보를 무시하고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의 소재를 찾아 그것을 춤사위에 녹아들게 하였다. 보는 이로 하여금 춤사위를 통해 개인적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게 하여 그것을 자신과 춤을 동화시키게 함으로써 신명을 느끼게 하였다. 35

아름다움은 생활 세계로부터 연유하는 것으로 대상의 순수한 속성을 생활과 따로 분리할 수 없다. 아름다움의 본질과 그 판단 기준에 대한 물음에 꼭 한 가지의 확고한 답을 택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어떤 예술 작품들 속에서 영원불변한 형식이나 원초적인 만족감을 유발하는 이미지가 발견되어 미적 감동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고 가정해도, 모든 예술 작품이 다 같이 그런 형식이나 이미지로서 감동을 일으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상의 순수한 속성에 따라 미적 판단을 결정지으면 커다란 오류를 범하는 것이 된다. 45

## Glossary

<sup>1</sup> 무보 - 춤동작을 악보처럼 일정한 기호나 그림으로 기록한 것

Text B를 읽고 문제지에 있는 2번 문제에 답하십시오.

### Text B

아래 글은 신영복의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중 일부입니다.

동생에게

‘미(美)’는 동물 ‘양(羊)’과 ‘크다(大)’는 뜻의 한자가 합쳐져 만들어진 말로 양이 크다는 뜻이다. 우리 선조들은 큼직한 양을 보고 느낀 감정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다. 그 고기를 먹고 그 털을 입는 양은 당시의 물질적 생활의 기본이었으며, 양이 커서 생활이 풍족해질 때의 그 푹푹한 마음이 곧 미였고 아름다움이었다. 이처럼 모든 미는 생활의 표현이며 구체적 현실의 정서적 정돈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바깥에서 미를 찾을 수는 없다. 5

더욱이 생활의 임자인 인간의 미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다. 용모나 각선 등 조형상의 구도만으로 인간의 아름다움을 판단할 수 없음은 마치 공간을 피해서 달아나거나 시간을 떠나 존재하거나, 쉽게 말해서 밑바닥이 없는 구두를 생각할 수 없음과 마찬가지로 너는 그녀의 생활 목표의 소재를 확인하고 그 생활의 자세를 관찰하며 나아가 너의 그것들과 비교해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랑이란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10

‘아름답다’는 것은 ‘알 만하다’는 뜻이다. 이것은 우리에게 미의식의 형성과 미적 가치 판단의 훌륭한 열쇠를 주고 있다. 이를테면 너의 머릿속에 들어앉은 이러저러한 여인상이 바로 너의 미녀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 기실 너는 너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아름다움을 측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네게 아름다운 여자가 어머니께 모름다운 여자가 되는 차이를 빛는다. 15

여기서 말해 두고 싶은 것은 너의 여성미 기준이 혹시 마스크임이나 유행의 침윤을 당하고 있거나 앓은가 하는 의문이다. 스스로 좁은 시야에 대한 반성이 있다면 인생의 어려움을 몸소 체험한 노인들의 달관과 그 관조의 안목을 닮았다고 빈정거리지는 못할 것이다.

미는 또한 신선미 즉 미의 지속성을 그 본질로 한다. ‘열흘 동안 붉은 꽃은 없다’는 말이 있거니와 부단히 자기를 갱신하지 않는 한 미는 지속되지 않는다. 정체성은 미의 반대말이며 권태의 동의어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녀가 어떠한 여자로 변화 발전할 것인가를 반드시 헤아려 생각해 봐야 한다. 20

착한 아내, 고운 며느리, 친절할 엄마, 인자한 시어머니, 자비로운 할머니 등 긍정적 미래로 열려 있는 여자인가 현재 속에 닫혀 있는 여자인가를 살펴야 한다. 이것은 현재를 고정불변한 것으로 완결하지 않고 과거나 미래의 연관 속에서 변화 발전의 부단한 과정으로 인식하는 철학적 태도이며, 현실성보다는 그 가능성에 눈을 모으는 열려 있는 시각이다. 25

나는 이 편지로 네게 여자를 고르지 말라거나 미녀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혼에 임하여 미의 의미를 새로이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길 뿐이다. 사실이지 사람이란 사과와 같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인생의 반려이며 생활을 통하여 동화 형성되어 간다는 점에서 우리는 면밀한 선택으로부터 좀 대범해져도 좋을 것이다. ‘부모나 형제를 선택하여 출생하는가’라는 현명한 질문 앞에서는 답변이 없어진다. 30

너는 아직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 하겠지만 요즘 세상에는 같은 가격이면 그 염색료만큼 천이 나쁜 치마이기 십상이다. 어쨌든 금년에는 네가 결혼하기 바란다.

1975. 1. 13.

35

## 형수님께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씨란 타고나는 것이며 재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여도 명필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의 글씨는 대체로 그 재능에 의존하기 때문에 일견 빼어나긴 하되 재능이 도리어 함정이 되어 손끝의 재주를 벗어나기 어려운 데 비하여, 재능이 없는 사람의 글씨는 손끝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쓰기 때문에 그 속에 혼신의 힘과 정성이 배어 있어서 ‘단련의 미’가 쟁쟁히 빛나게 됩니다. 40

만약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그 위에 혼신의 노력으로 꾸준히 쓴다면 이는 흡사 여의봉 휘두르는 손오공처럼 더할 나위 없겠지만 이런 경우는 관념적으로나 상정될 수 있을 뿐, 필재가 있는 사람은 역시 오리 새끼 물로 가듯이 손재주에 탐닉하게 마련이라 하겠습니다. 45

결국, 서도는 그 성격상 토끼의 재능보다는 거북이의 끈기를 연마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더욱이 글씨의 훌륭한 글자의 자획에서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묵 속에 갈아 넣은 정성의 양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평가되는 것이기에 더욱 그러리라 생각됩니다.

사람의 아름다움도 이와 같아서 타고난 얼굴의 조형미보다는 그 사람의 지혜와 경험의 축적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격이 되어 은은히 배어나는 아름다움이 더욱 높은 것임과 마찬가지로 인생을 보는 시각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지름길과 행운에 연연해 하지 않고, 역경에서 오히려 정직하며, 기존과 권력과 부에 몸 낮추지 않고, 진리와 사랑에 허심탄회한……. 그리하여 스스로 선택한 ‘우직함’이야말로 인생의 무게를 육중하게 해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50

벌써 4월도 중순, 빨래 잘 마르는 계절입니다. 지난번 어머님 접견 때 주용이 유치원 졸업식 이야기 듣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밖에 있을 적에는 세상에 없던 녀석들이 성큼성큼 자라고 있는 이야기는 ‘유수 같은 세월’을 실감 나게 합니다. 55

1982. 4. 13.





**BLANK PAGE**

---

Permission to reproduce items where third-party owned material protected by copyright is included has been sought and cleared where possible.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by the publisher (UCLES) to trace copyright holders, but if any items requiring clearance have unwittingly been included, the publisher will be pleased to make amends at the earliest possible opportunity.

To avoid the issue of disclosure of answer-related information to candidates, all copyright acknowledgements are reproduced online in the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Copyright Acknowledgements Booklet. This is produced for each series of examinations and is freely available to download at [www.cie.org.uk](http://www.cie.org.uk) after the live examination series.

Cambridge International Examinations is part of the Cambridge Assessment Group. Cambridge Assessment is the brand name of University of Cambridge Local Examinations Syndicate (UCLES), which is itself a department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